

##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정치·경제 동향

### 1. 최근 정치·사회 동향

#### 가. 최근 정치동향

□ 양원제 도입 등 일부 개혁조치가 있었으나, 불공정한 총선거 등 현정권의 정치 민주화는 지지부진

- 양원제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된 총선거(2004년 12월 및 2005년 1월)는 야당후보의 실질적 참여 금지, 반정부 언론 탄압, 국제적인 NGO 재등록 거부 등 불공정 선거로 진행되는 등 정치 민주화는 여전히 부진함.

※ 현정권은 그루지아 벨벳혁명(2003년 11월),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2004년 12월) 등 국제 NGO 들의 지원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반정부세력들의 시민혁명 발생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

#### 나. 최근 사회동향

□ 2004년 연이은 테러사건에 이어 일부 지역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품은 시위가 발생

- 경제상황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2004년 11월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으로써 향후 국민들의 생활수준 악화에 따른 반정부 시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 정부는 3~4월 테러사건, 7월 자살폭탄테러를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된 급진 이슬람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주장하며, 정치개혁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등 외부시각은 카리모프 정권의 정치적 압제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반정부세력의 행위로 보고 있음

#### 다. 최근 대외관계

##### □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

- 2004년 6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시 양국간 안보·테러 등에 관한 전략적 협력협정(우즈베키스탄 내 러시아 공군기지 배치 등) 체결과 러시아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투자 확대에 양국간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2004년 6월 중국 후진타오 주석 방문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미국의 경제원조 감소 등에 불만을 표출하고는 있으나 경제지원 및 지역안보 등을 이유로 미국과의 급격한 관계악화 가능성은 낮음(미국이 우즈베키스탄 내 공군기지를 철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인권문제 및 정치개혁 부진을 이유로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꺼리고 있음)

#### 라. 정세 전망

- 정치 민주화의 급진전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생활수준 악화 등 일반

---

###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만으로 사회적 불안 가능성 고조

- 서방의 압력에 의해 다당제 도입 등 일부 형식적인 정치 개혁조치를 펼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야당세력을 탄압하고 언론 및 NGO 활동 등을 억압함으로써 정치 민주화에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반정부 이슬람세력의 추가 테러 가능성 및 경제에 불만을 품은 일반 주민들의 산발적인 소요 가능성도 높으나, 카리모프 정권의 강력한 통제능력으로 전국적인 소요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2. 최근 경제동향

### 가. 경제구조

#### 면화, 금 등 1차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

- 국제시세에 민감한 면화, 금 등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후진적인 금융시스템, 낙후된 제조업, 관료주의 팽배, 잦은 정책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열악한 투자환경 등으로 경제구조가 취약함

### 나. 경제정책

#### 점진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에 의한 제조업 기반 구축, 국영기업의 민영화, 숨화 태환 보장 및 환율단일화 유지 등

####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에 의한 점진적인 시장경제체제 전환으로 인해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 개혁부진, 열악한 투

자환경에 따라 서방 선진국의 지원이 감소하고 외국인투자 유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

다. 국내경제

□ 2005~06년 중 경제성장률 5% 전망

-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로 2003년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금 및 면화 수출 증가, 수입억제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따른 국내생산 증가에 기인

주요 국내경제지표

단위: %

	2002	2003	2004 <sup>e</sup>	2005 <sup>f</sup>	2006 <sup>f</sup>
경제성장률	3.2	1.5	7.0	5.0	5.0
재정수지 / GDP	-0.8	-0.4	-0.4	-1.0	-1.4
소비자물가상승률	24.2	13.1	2.4	2.8	3.1

자료: EIU

- 2005~06년 중 경제성장은 러시아 기업의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투자, 국제 금시세 강세 및 면화가공능력 향상 등으로 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물가는 10%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2005~06년 중 공공부문 임금 인상, 전기세 인상 등 물가인상 요인이 있으나, 숭화 유동성 억제 등 정부의 강력한 통화긴축정책으로 소비자물가는 10% 이내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200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1% 예상

- 금의 국제시세 상승과 간접세의 인상 등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직접세 세수기반 확대 실패로 재정수입 증가에 한계가 있음
- 생필품에 대한 정부 보조 확대와 사회복지부문 지출 증가가 재정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GDP의 1% 범위내에서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하고 있음

라. 대외경제

주요 대외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2	2003 <sup>e</sup>	2004 <sup>e</sup>	2005 <sup>f</sup>	2006 <sup>f</sup>
경 상 수 지	219	726	1,192	875	490
경 상 수 지 / G D P	2.3	8.2	12.9	9.6	5.5
상 품 수 지	324	836	1,530	1,180	800
수 출	2,510	3,240	4,430	4,690	4,740
수 입	2,186	2,404	2,900	3,510	3,940
외 환 보 유 액	640	1,100	1,000	-	-
총 외 채 잔 액	4,600	4,500	4,500	4,400	4,3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47.2	51.4	49.7	-	-
D. S. R.	24.3	25.6	22.5	-	-

자료: IFS, GDF,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수출증가 및 정부의 강력한 소비재 수입통제정책, 외환규제 등으로 흑자 기조 유지

- 지난해 경상수지는 국제 금시세 상승, 소비재 부문에 대한 수입통제 정책 등으로 예상보다 높은 약 12억 달러 추정
- 2005~06년 중 경상수지는 주력 수출품목인 금 및 면화의 생산량 증

가, 소비재 수입억제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FDI 유입액이 대체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의 석유가스 부문에 30억 달러 이상 투자할 예정

- 국영석유가스회사인 Uzbekneftegaz가 러시아 LUKoil, Gazprom과 우즈베키스탄 석유·가스부문 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

※ Gazprom은 지난해 4월 Uzbekneftegaz와 15년간 Shakhpakyty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생산물분배협정(PSA)을 체결하는 등 우즈베키스탄 가스전 개발에 향후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LUKoil도 지난해 6월 Khauzak-Shady, Kandym 가스전 개발과 관련하여 35년간 PSA를 체결하고 2007년부터 가스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운송 파이프라인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을 감안하면 10억 달러에 달함

- 2004년 6월 중국국영석유회사(CNPC)와 Uzbekneftegaz는 석유·가스부문 개발과 관련한 협정 체결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의 석유·가스부문 자금도입과 관련한 정부 resolution을 마련하였으며, 25개 프로젝트에 3억 4,500만 달러, 석유·가스부문 개발에 1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

□ 2004년 상반기 외환부족 징후가 나타났으나, 국제 금시세 상승 등으로 지난해 말 1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

- 2004년 상반기 태환 1순위 업체인 우즈대우차의 태환 지연, 갑을방적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원자재 구입 달러채무 조기상환 독촉, 대외경제은행(NBU)의 일부 외채 지연상환(기일경과후 상환) 등 외환부족

## 징후가 나타났음

- 국제금시세 상승, 자동차 등의 출혈 수출, 외국 또는 국제금융기관의 원조, 러시아 및 중국의 대규모 투자 유치 등으로 외환부족 해결 모색
  - 정부는 금수출 증가, 자동차 등의 출혈 수출, 외국 또는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한 경화조달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관들의 지원 불투명, 미국의 원조 축소 등에 따라 러시아의 대규모 가스전 개발 투자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외환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 최근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채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음
  - 2004년 말 현재 총외채는 45억 달러로 GDP의 약 50%, D.S.R 23% 수준으로 높은 편이나, 최근 수출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채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음
  
- 올해 외환유입 증가로 일시적인 숨화강세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평가절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04년 말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기준환율이 1달러당 1,055숨으로 2003년(979숨)보다 평가절하되었으며, 2005년에는 외환유입 증가로 평균환율이 1,115숨으로 일시적인 숨화 강세가 예상되나 2006년에는 1달러당 1,230숨으로 평가절하의 낙폭이 클 것으로 전망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태환 보장에 대한 소극적 태도
  - 2003년 10월 IMF 8조(완전한 태환보장)를 수락하였으나, 3월 1일 숨화 반출입 한도 규제조치, 중앙은행의 부문별, 기업별 외환 할당 등 완전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우즈베크인들은 국내 달러구매가 어려워짐에 따라 숨화를 카자흐스탄 등으로 밀반출, 달러로 환전하는 사례가 많음

□ 환율단일화 유지 고수

- 정부는 환율단일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경화수요 증가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무역, 금융, 재정 정책을 동원하고 있음

※ 품목제한, 고율의 관세부과 등 강력한 수입통제정책, 인근 국가와의 국경무역 통제를 위한 숨화의 대외 반출입 제한 등 무역통제정책, 임금·연금 지급 지연 및 예산투자지출 억제, 상업은행 현금인출 제한 등을 통한 시중 숨화유통 억제 등 긴축 재정·금융정책이 병행되고 있음

- 정부가 숨화환율의 현실화를 위해 환율인상을 허용할 경우 시중 달러 유통은 더욱 축소됨으로써 환율인상 가속화 우려

3.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현황

1) 교역 현황

□ 2004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436백만 달러(수출 359백만 달러, 수입 77백만 달러)로 2003년 대비 수출이 45% 증가하는 등 2003년부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 부품, 원동기, 합성수지, 승용차, 타이어, 에어컨, 컬러TV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일반 소비재에 대한 수입규제로 인해 소비재 수출은 저조

2) 투자 현황



-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3년부터 시작되어 2004년 말 현재 총투자기준 43건 395백만 달러, 투자잔액 기준 37건 230백만 달러로 대우자동차 및 갑을방적의 대규모 투자 이후 감소 추세

### 3) 수출입은행 지원 현황

- 수출입은행은 2004년 말 현재 수출자금 14건 23백만 달러, 해외투자자금 10건 95백만 달러, 대외경제협력자금 1건 36백만달러 등 총 28건 154백만 달러의 여신을 지원한 바 있음

### 4) EDCF 지원 현황

- EDCF 지원은 통신망 현대화 사업 등 총 2건 49백만 달러를 집행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교육기자재 공급사업 프로젝트 27백만 달러를 승인한 바 있음

책임연구원 차 실(☎02-3779-6678)  
E-mail : [skysilh@koreaexim.go.kr](mailto:skysilh@koreaexim.go.kr)